

그믐달 고전시대학

<고어 자동번역기>

‘오늘도’ 열심히 산
너희들을 위한 것

이용우(그믐달) 편저

* 저의 삼수생 시절을 고백합니다.

저는 사실, 보기와는 다르게(ㅋㅋㅋㅋ그중?)

삼수를 했습니다.

집이 변변치 않은 형편이라,

재종반 다니고 싶지도 않았지만,

도서관에서 아침마다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해서, 인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(진리의 삽자루)

계절 마다 옷 한 벌 짚어서 그것만 입고 다니면서, 도서관 출퇴근했습니다.(후훗 그래도 스타 일리쉬했음)

어떤 날 아침은 정말 너무 피곤해도, 집에 두세 시간 일찍 들어오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역시 도서관 닫히는 시간까지 인강이라도 듣고 왔습니다.

지금 생각해보니, 그 고통스러운 시간, '내 인생은 왜 이리 버스같은까'라는

생각이 오히려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

결국, 그것이 내 목표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.

(허나 꿈은 계속 높아지는 것은 함정...)

요즘도 우러러보는 강사님들 잘 나가시는 거 보면서 '늘' 비슷한 기분이 들지만,

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.

왜냐하면..... 삼수경험을 통해서,

그 '나쁜' 기분이

'때로는' 사람을 발전시키는 '유일한'.....

'가장 무서운 폭발력'을 가지는..... 엔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.

저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.

올해 오르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렸지만,

그냥 오르비까지가 내 한계이진 않을까?

국어 하다가 그냥 문헌 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?

그럴수록 저는.... 저는 '그냥' 하겠습니다.

여러분도 '그냥' 하세요.

초조하고 불안할수록 '그냥' 하세요.

나머진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.

-영세강사 그믐달T-

그믐달 고전MOON학

수능 고전문학 관점

- 선택지 2.5개 추론능력
- 나머지 2.5개 고어해석 & 작품 '미리' 학습

1. <고어 자동번역기>

- 고어 자동번역기로, 관동별곡, 속미인곡부터 연습하세요.

① 'ㄴ' (아래 아) 해석

- 첫째 음절 'ㄴ' : '나'로 해석하세요.
- 둘째 음절 이하 'ㄴ' : 주로 'ㄴ'로 해석하세요.

ex)

돌 ⇒ 달

가을 ⇒ 가을

말쌈미 ⇒ 말쓰미 ⇒ (이어적기) 말쌈이

② 이어적기

-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, 이어적기가 된 것이 아닐까
- 뒤 음절 자음을 앞 음절 받침으로 옮겨보세요.

ex) 버디 ⇒ 벌이

기퍼 ⇒ 깊어

바티라 ⇒ 밭이라

③ 구개음화가 진행되지 않은 형태

- 'ㄷ, ㅌ'과 'ㄴ'모음 계열(ㄴ, ㄷ, ㄱ, ㄲ, ㄴ, ㄷ, ㄱ, ㄲ)로 존재할 때, 구개음화해서 해석하세요.

(디, 다, 더, 도, 두, 대, 테) ⇒ (지, 자, 저, 조, 주, 재, 제)

(티, 타, 터, 토, 투, 태, 테) ⇒ (치, 차, 처, 초, 추, 채, 체)

(④ 이중모음 :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해석해 주기)

ex) 더기 더 여인 ⇒ 저기 저 여인 (속미인곡 中)

기심되 고터 올라 동향성 바라보며, (관동별곡 中)

⇒ 개심대 고쳐 올라 동향성 바라보며,

테세 ⇒ 체세, 텃디간 ⇒ 천지간 (관동별곡 中)

④ 이중모음

-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해석하세요.

ex) 죠션 ⇒ 조선

물정 ⇒ 물정

자근 거시 ⇒ 자근 거시 ⇒ (이어적기) 작은 것이

⑤ 어두자음군

ㅅ, ㅆ 같은 어두에 '자음군'이 있는 형태

- 뒤 자음의 된소리로 해석하세요.

ex)

꽃 ⇒ 꽃 ⇒ 꽃

쓰고 ⇒ 쓰고

봄꽃 ⇒ 봄뜻

⑥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

- 'ㄴ'과 'ㄴ'모음 계열(ㄴ, ㄷ, ㄱ, ㄲ, ㄴ, ㄷ, ㄱ, ㄲ)이 첫음절로 올 때,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ㄴ을 ㅇ으로 바꿔 해석하세요.

(니, 냐, 녀, 뇨, 뉴, 내, 네) ⇒ (이, 야, 여, 요, 유, 애, 예)

ex)

녀름 ⇒ 여름

녀산 ⇒ 여산

녯날 ⇒ 옛날

- 'ㄴ'이 첫음절에 올 때, 'ㄴ'으로 바꿔 해석해주세요.

ㄴ ⇒ ㄴ

ex) 로인 ⇒ 노인

량심 ⇒ 낭심 ⇒ (ㄴ+'ㄴ'모음계열 두음법칙) 양심

⑦ 'ㅇ'(받침음)

'ㅇ' 받침

'ㅇ'이 형식형태소에 쓰였을 경우

- '무음'으로 읽으세요.

ex)

막스미 ⇒ 마오미 ⇒ (이어적기) 마음에

머나면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⇒ 길에

⑧ '배우지 않으면 모르는' 의문문 표현

①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

(보조사 고/오) + (종결어미 -오/-뇨)

ex) 이 엇던 사롱고

이제 어디 잇뇨

이 내 생애(生涯) 엇더흔고(상춘곡 中)

십장(十丈) 홍진(紅塵)이 얼마나 가렸는고(어부단가 中)

어와 더 디위를 어이후면 알 거이고

(⇒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것인가? 관동별곡 中)

㉞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***
 (보조사 가/아) + (종결어미 -아/-너)
 (주어 2인칭 '-나' 특수한 의문형 어미)
 : 의문사가 없기에, 모르면 의문문. 설의법 해석불가능

ex) 이 쓰리 너희 종가 (⇒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나?)
 오락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출가
 (⇒오르지 못하거나 내려감이 가능할까? 관동별곡中)
 네 모르던다 (⇒너는 모르느냐?)
 네 엇데 안다 (⇒너는 어떻게 아느냐?)
 천만 겁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다.
 (⇒천만 겁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? 관동별곡 中)

㉟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

ex) 물블플 ⇒ 물불플

㊱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
 - 스, 즈, 츠 + 'ㅡ' ⇒ 'ㅣ'
 (스,즈,츠) ⇒ (시,지,치)

ex) 존뒤 ⇒ 진대
 거촌 ⇒ 거친 (고공가 中)

㊲ 중성(받침) 표기법 8중성법에서 7중성법으로의 변화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 (ㄷ받침이 쓰이지 않는)
 8중성법 : ㄱㄴㄷㄹㅁㅂㅅㅇ 8개의 중성표기만 하겠다.
 7중성법 : 8중성법에서 ㄷ받침만 빠집니다.(ㅅ으로 통일)
 => (ㄷ이 존재하면 '확실한' 8중성법)
 => 'ㅅ이 있으면 ㄷ과 바꿔보는 센스'

ex)
 변(8중성법) ⇒ 뵈(7중성법)
 못[연못], 못[불능] (8중성법) ⇒ 못(7중성법)
 밋어(7중성법) => 믿어(8중성법)

2. <작품 '미리' 학습 - '작품 특수성'>

- '작품 by 작품'
 : 작품의 특수한, 고유한 '단어/구절'은 학습을 통해 '미리' 습득해야 합니다.

*** 작품 '미리' 학습 part는
 수업 또는
 잘 만들어진 독학서로
 진행해야 효율이 높습니다.
 '내 강의 ㄷㄷ하지만 홍보는 아님ㅋ'

ex) 천석고향 ⇒ 자연즐김(다수 강호한정가),
 병 ⇒ 자연즐김 (다수 강호한정가),
 만고상청
 ⇒ 늘 푸르려야한다. 학문에 대한 의지(도산십이곡),
 만권생애
 ⇒ 만권을 읽는 인생, 학문에 대한 의지(도산십이곡),
 서절투구
 ⇒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,
 왜적을 비유 (선상탄)

- '시대'의 특수한 단어

ex) 조타 ⇒ 깨끗하다,
 간난 ⇒ 가난
 어엿쁘다 ⇒ 불쌍하다 등등
 녀다 ⇒ 가다 EX) 널구름(가는 구름), 녀던길(가던 길)